서양화 같은 불화…'근대불화' 만나다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불교회화실 교체전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화는 지금도 여러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 그렇기에 현대의 불화는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기법들이 활용되기도 한다. 이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불화들도 비슷했다. 개화기, 서구 문물이 들어오며 서양화들이 조선에 소개되기 시작했고 이는 불화를 조성하는 화승들에게도 영향이 미쳤다. 그래서 근대기 불화 중에는 서양화 기법의 영향을 받은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조성된 근대불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2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19~20세기 불교회화와 초본 총 23건 37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활동한 대표적인 화승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고산 축연(古山 竺衍) 스님은 금강산 유점사에 머무르며 전국적으로 작품을 남겼다. 축연 스님의 작품 〈극락에서 설법하는 아미타불〉에 등장하는 불보살들은 얼굴의 이목구비와 주름, 몸의 양감 표현에 서양화의 음영법을 사용해 입체감을 표현했다.

19~20세기 화승 조성 불화 눈길
축연, 서양화 음영법 표현해 독특
근대기 화승 초본들도 확인 가능
이건희 콜렉션 근대불화 첫 공개

또한, 축연 스님은 〈쌍월당 대선사 초상〉에서 그림 안의 족자에 자신의 당호 '혜산(蕙山)'을 적어 넣었다. 일반 문인화가처럼 개인의 이름을 남기는 것은 전통적인 불화 제작 전통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는 축연 스님이 승려 장인이면서도 스스로를 예술 창작 주체로서 인식하고 개성을 표현한 모습이다.



〈극락에서 설법하는 아미타불〉 축연 스님이 조성한 불화로 19~20세기 무렵 조성됐다. 불보살들의 이목구비와 주름, 몸의 양감에 서양화의 음영법이 활용됐다.



근대불화 〈제석천〉 천여 스님이 1843년 조성했다. 이건희 회장 콜렉션으로 처음 소개된다.

이 전시에서는 근대 화승들의 작업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초본이 함께 전시된다. 〈인물 밑그림〉은 마곡사파 화승 금호 약효(錦湖若效, ?~1928) 스님의 작품으로, 화면 위쪽에 "약효가 초를 내다"라고 적혀 있다. 불화 초본을 제작할 때 바탕천을 위에 덮고 베껴 그릴 수 있도록 필선을 또렷하게 표현하는 것에 비해 이 그림은 가는 붓으로 자유롭게 그린 필선을 보여, 일상적인 연습이나 제자에게 그려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꼼꼼히 그린 초본도 함께 선보인다. 〈지옥을 다스리는 지장보살 밑그림〉은 서울 경국사에서 60여 년간 머무르며 불상과 불화를 조성한 보경 보현(寶鏡普賢, 1890~1979)의 작품이다. 이 초본은 세부를 그린 후 각 부분에 '백(白)', '황(黃)', '진홍' 등 어떤 색을 칠할 것인지 자세히 적어 넣어, 이후의 작업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1917년에 조성된 〈지장암 자수지장보살도〉와 화면 크기 및 구성이 동일해 자수 불화의 초본으로 그려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에서는 2021년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 중 근대 불교회화 여러 점이 최초로 공개돼 눈길을 끈다. 〈제석천〉은 19세기를 대표하는 화승 천여(天如, 1794~1878) 스님이 1843년에 그린 것이다.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은 파도 속에서 솟아오른 바위에 편안히 앉아 있는 수월관음의 모습으로, 1854년 전라도 지방에서 활동한 도순(道詢, 19세기 중반 활동) 스님이 그렸다.

〈불화 밑그림〉은 작은 화면에 먹으로 동자·옥졸·판관 등 명부 관련 불화에 등장하는 하위 권속의 모습을 빼곡하게 그렸다. 시왕도나 지장보살도, 감로도 등을 그리기 위한 습작으로 보이며, 근대 불화승의 일상적인 작업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는 사회의 급격한 변동과 함께 불교와 불교미술을 둘러싼 위상과 환경도 변화하는 시기였다. 근대의 불교회화는 조선시대의 불교미술 조성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면서 "오늘날의 불교미술로 계승되기까지 시도됐던 다양한 노력의 모습들을 만나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 사찰 금강문·천왕문 '보물' 된다

문화재청 2월 16일 지정 예고
통도사 · 직지사 등 8곳 山門
"역사 · 예술적 가치 높아" 평가

사찰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첫 산문(山門)은 일주문(一柱門)이다. 이를 넘어서면 금강문(金剛門)과 천왕문(天王門)을 만날 수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사찰의 삼문(三門) 체계가 성립되면서 나타나는 사찰 진입부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건축물이다.

불교와 사찰의 수호신장들을 모신 금강문과 천왕문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완주 송광사 금강문' 등 8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월 19일 밝혔다.

지정예고된 '완주 송광사 금강문'은 17세기에 건립돼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 및 종루의 형태와 유사한 점이 건립



완주 송광사 금강문.

연대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보은 법주사 천왕문'은 정유재란 이후 법주사 재건이 이뤄지던 17세기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 천왕문 기둥과 사천왕상에 대한 연륜연대 분석 결과를 통해 1620년경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 통도사 천왕문'은 1713년(숙종39)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그 다음 해인 1714년에 중건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사찰 산문(山門) 중 건립시기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사례다.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건물로 자연친화적인 위치에 건립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구례 화엄사 천왕문'은 고려 후기에 처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임진왜란 이후 소실됐던 것을 벽암 각성(碧巖覺性)이 1636년(인조14)에 중창했다.

'영광 불갑사 천왕문'(전라남도 영광군)은 정확한 창건 연대를 알 수 없으나, 기록을 통해 1725년(영조1)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공포(栱包)는 17세기 이후 서남해안 지역 사찰 건물의 건축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장식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어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

'포항 보경사 천왕문'은 정확한 창건 연대를 알 수 없으나, 1679년(숙종5) 중창한 후, 1761~1767년(영조37~43)에 중건(重建)한 것으로 확인된다. 17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진 사찰 천왕문의 조성과 시기적 변화양상을 살필 수 있는 사례이다.

'김천 직지사 천왕문'은 1596년(선조 29) 임진왜란 때 왜적의 방화로 절의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천불전, 자하문과 함께 피해를 입지 않고 유지돼 오다 1665년(현종6) 사천왕상을 새로 조성하기 이전에 중건(重建)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완주 송광사 금강문' 등 8건의 문화유산에 대해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조선 불상, 고려 청동북 등 보물 지정

문화재청, 2월 21일 지정 공고
영광 불갑사 일원 명승 지정돼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목조시왕상과 고려시대 청동북, 고려·조선 불교 전적들이 대거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 '천수원'명 청동북, 〈예념미타도량참법〉권6~10 등 7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고 2월 21일 밝혔다.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은 승일, 성조 등의 조각승들이 1665년(조선 현종6) 완성해 송림사 명부전에 봉안한 것이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천수원'명 청동북은 1162년(고려 의종16)에 제작된 청동북으로, 몸체 측면에 제작 시기, 무게, 사찰명, 주관 승려가 적힌 글씨가 있어 12세기 중엽의 중요한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

편년 자료로 평가된다.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은 기존에 보물로 지정된 판본보다 앞선 시기에 조성된 판본일 뿐 아니라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유일본으로 자료적 희소성과 가치도 뛰어나다.

〈예념미타도량참법〉권6~10 '선광사 소장본'은 끝부분에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출된 등곡 학조(燈谷學祖)의 '발문(跋文)'이 수록돼 있으며, '총명사 소장본'은 김수온(金守溫)의 '발문'이 수록됐다.

또한 문화재청은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을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2월 19일 지정했다.

신중일 기자

김오곤 한의사가 강력 추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그린에너지 전속모델 한의사 김오곤

온열요법 건강매트 · 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를 선택할 때 보통 6~9cm 높이의 베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위나 아래로 휘지 않고 등뼈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만 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 7.9cm, 옆으로 누웠을 때는 9.5cm의 높이가 적당합니다. 여자는 바로 누웠을 때 6.3cm, 옆으로 누웠을 때 7.3cm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몸이 불편하고 일자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베개를 벨 때는 머리를 받치기보다는 목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베는 것이 좋습니다. 목의 근육이 이완돼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목뼈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베개 20만원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